전체 법인 90%, 세율 10% 적용

〈32만개 기업〉 〈2010년부터〉

■ 기획재정부 고유가종합대책 시행안

오는 2010년부터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체 법인의 90%에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 역시 7%로 낮아진다. 근로자들은 오는 10월부터 유가 상승에 따른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50% 기준인 최대 월 2만원을 유가환급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화물차.버스.농어민 등에 대한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행세율 인상, 교통세율 인하가 단행된다.

월 2만원 유가환급금 10월부터 지원
화물차·농어민 등 유가연동 보조금도
'정규직 전환' 1인당 30만원씩 稅공제

◇전체 법인 90%에 법인세 낮은 세율 적용=기획재정부는 고유가 종합대책 시행,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 지원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6개 세법개정안과 1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2억원 이하의 경우 법인세율이 2008년부터 11%로 낮아지고 다시 2010년에는 10%로 인하된다. 2억원 초과인 경우 각각 22%와 2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전체 35만개 법인 중 90.4%인 32만개 기업이 2010년부터는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기본세율 외에 낮은 세율을 운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모두 6개국에 불과하며 벨기에(24%), 일본(22%), 영국(21%), 네덜란드(20%), 미국(15%) 등에 비해 우리나라의 세율이 낮다.

재정부는 아울러 현행 25%인 법인세 높은 세율을 2010년까지 20%로 낮춤으로써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일자리 창출→경제성장'의 선순환 구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법인세율의 2단계 인하에 맞춰 최저한세율도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10%에서 2008년 8%, 2010년 7%로 낮추고, 일반기업의 경우는 현재 과세표준 1천억원까지는 13%에서 2010년까지 10%로, 1천억원 이상은 15%에서 2010년까지 13%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10월부터 유가환급금 지원=정부가 최근 발표한 고유가 대책을 실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일을 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유가환급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빠르면 10월부터 교통비 추가 부담액의 50% 수준을 환급(최대 월 2만원) 해줄 계획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1t 이하 자가용 화물차에 대한 경차 유류세 환급(연간 최대 10만원),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10→20%)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에는 영업용 화물차·버스·연안화물선.농어민 등에 대한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1조5천억원 상당의 유가연동 보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주행세 법정세율을 현행 교통세의 32%에서 36%로 인상한다. 주행세율 인상에 따른 전반적인 세금 부담 증가분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교통세 법정세율은 휘발유를 현행 ℓ당 630원에서 475원으로, 경유는 ℓ당 454원에서 340원으로 낮춘다. 또 향후 유가 변동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탄력세율 한도를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시 1인당 30만원 세액공제=국무회의에서는 또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원을 2009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3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할 때 출연금액을 전액 대비 인정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대기업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해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전액 법인세를 면제하되 대기업이 협력업체 주식을 취득해 지배력을 강화하지 않도록 의결권 없는 주식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하반기 취업문 좁아진다

■ 상의 500대기업 조사

291개사 1만9천명 채용 확정
공기업 9곳은 채용 계획 없어

주요 기업들의 올 하반기 신규채용이 작년 하반기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잡코리아와 공동으로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 하반기 일자리 기상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하반기 채용계획을 확정한 기업(291개사)들의 신규채용 예정규모는 1만9천464명으로 지난해 하반기 채용규모인 2만178명에 비해 3.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조사에 따르면 하반기 신규인력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이 54.0%, 채용계획이 없는 기업이 25.8%로 나타나 응답기업의 79.8%가 하반기 채용여부를 확정했고 나머지 20.2%는 아직 채용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18일 "10개중 2개 기업정도가 아직 채용여부를 정하지 못하고 있어 대내외 경영환경이 악화될 경우 채용 감소율이 3.5%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종별 채용규모를 보면 금융업 2천680명, 조선중공업 2천570명, 전기전자업이 2천420명을 뽑을 예정이고 건설 1천785명, 식음료외식업 1천705명, 자동차 1천574명, 제조업 1천290명 등인 반면 공기업 9개사는 올 하반기에 채용을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2008년 하반기 업종별 채용예상 인원

업종별	2008년 하반기 채용 예상 인원	2007년 하반기 채용 인원
금융업(35개사)	2.680	2.739
조선중공업(10개사)	2.570	2.720
전기/전자(16개사)	2.420	2.362
건설업(42개사)	1.785	1.845
식음료/외식(18개사)	1.705	1.595
자동차업(19개사)	1.574	1.547
제조업(27개사)	1.290	1.326
유통/무역업(22개사)	1.160	1.165
IT정보통신(17개사)	1.125	1.226
기타업종(15개사)	990	970
기계/철강(16개사)	730	763
항공/운수업(9개사)	620	659
석유/화학(27개사)	480	405
섬유/의류(9개사)	335	400
공기업(9개사)	0	456
합계(291개사)	19.464	20.178

그린벨트내 농수산물 저장창고 면적 확대

10월부터 150㎡까지 지을 수 있어 … 축사관리사도 규제 완화

10월말부터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농수산물 저장창고와 축사관리사를 지금보다 크게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입지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 및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린벨트내 거주자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100㎡ 이내로 돼 있는 농수산물 저장창고를 150㎡ 이내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고 10㎡ 이내인 축사관리실도 33㎡ 이내로 늘려 주기로 했다. 또 공동창고, 공동작업장 등의 설치를 지원해 주민소득증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때 매수대상에 건축물, 지장물, 임목 등 정착물도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그린벨트내 토지매수 신청도 1개월만 받던 것을 연중 접수하기로 했다.

이밖에 그린벨트내 업무.상업시설의 최고 높이(7층) 규정을 폐지해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짓도록 하고 구역지정 이전에 설치된 공장을 증축할 때 '지정당시 시설연면적 만큼'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은 지정 당시 연면적의 2분의1까지만 증축할 수 있다. /연합뉴스

지방 민간주택 전매제한 없어진다

29일부터 시행 … 공공주택은 1년간 유지

오는 29일부터 지방의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이 없어지고 공공주택은 1년간만 전매가 제한된다. 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전매가 3년간 제한되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면 곧바로 전매제한이 해제돼 팔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3년, 비투기과열지구는 1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공포돼 2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은 지방 공공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에 상관없이 85㎡이하는 5년, 85㎡초과는 3년으로 돼 있다. 현재 지방 투기과열지구는 한 곳도 없기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 공공택지에서 분양한 주택을 계약한 뒤에는 일률적으로 1년 뒤부터 자유롭게 팔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민간택지의 경우 지난 2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29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만 전매제한(충청권 3년, 기타 1년)이 있고 비투기과열지구는 없어진다. 단 시행일 이전에 분양받은 주택은 '계약체결 가능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전매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진 뒤에는 전매제한기간을 풀도록 하고 있다. 이는 후분양제 시행으로 계약에서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의 기간이 짧아져 실제 입주가 이뤄졌는데도 전매제한은 끝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 조치로 인해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받은 주택도 전매제한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면 바로 팔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담배 모양 장난감·과자 하반기부터 못 만든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담배 형태의 과자나 장난감을 만들어 팔 수 없게 된다.

18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담배 모양을 한 식품이나 장난감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늦어도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는 담배 형태를 흉내 낸 초콜릿과 장난감 등이 청소년들에게 담배와 흡연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개정안은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다 2005년 4월 말 발효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단계적 이행조치인 만큼 여야간 큰 이견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는 한편, '저타르', '마일드' 등의 표현 금지, 금연구연 확대, 담배광고 제한, 담배회사의 문화·스포츠 행사 후원금지 등의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나만의 키홀더' 광주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 포커시스가 18일 스와로브스키사 크리스탈을 사용한 '나만의 키홀더'를 선보여 고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키홀더'는 차량번호, 생일, 기념일 등의 나만의 소중한 번호를 제작해 3만2천원에 판매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유가 200달러는 과장 내년엔 반토막 날 수도"

삼성경제硏 "투기자금 빠지면 폭락할 것"

한국의 대표적 민간 경제연구소인 삼성경제연구소가 '유가 200달러 공포가 과장됐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미 달러화 약세로 인해 원유로 몰리고 있는 투기 자금이 빠지고, 올 하반기 중국 올림픽 특수가 끝나면 내년엔 유가가 반 토막 날 수도 있다는 것이 요지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세리 CEO 강연'(삼성경제연구소가 CEO 회원들을 대상으로 여는 강연)에서 처음으로 유가 급락에 대한 전망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이 연구소는 '글로벌 자원 전쟁과 한국 기업의 대응'이란 리포트를 통해 '현재 유가가 과장되게 폭등해 있기 때문에 폭락의 시점이 곧 도래하며, 그 시점은 내년'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연구소는 그 근거로 '현재 유가가 투기 자본에 의한 거품'이라는 점을 들었다. 미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고, 그 결과 투기 자본이 원유나 곡물 등 원자재로 이동하면서 유가 상승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는 이미 한계점에 도달한 만큼 내년에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원유로 몰린 투기 자금들이 철수하면서 유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다른 유가 급락의 요인은 '중국 리스크'의 해소다. 올해 중국이 올림픽을 마치면 건설 쪽으로 몰린 원유 수급 요인들이 급락하며 과열된 원유 가격이 진정 기미를 보이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리포트를 작성한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장 김경원 전무는 "유가 거품이 꺼지는 내년엔 배럴당 120~130달러 선인 현재 유가가 그 절반인 60~70달러 선으로 급락 조정될 수도 있다"며 "지금의 유가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기업이든 정부든 거품이 꺼지는 시기에 대비해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금융위장 "우리금융 등 민영화 지체없이 추진"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18일 "우리금융과 기업은행의 민영화도 산업은행 민영화에 병행해 지체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조선경제포럼 초청강연에서 "정부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 가운데 소수 지분(23%)의 매각을 우선 추진하고 2009년부터 금융시장 여건을 봐가며 지배지분의 매각에 착수하겠다"며 "2008~2010년에는 기업은행의 정부 소수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우리금융 지분을 73%, 기업은행 지분의 경우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보유 지분을 포함해 67% 갖고 있다.

전 위원장은 "산업은행은 이미 발표한대로 산은지주회사와 정책금융기관인 한국개발펀드(KDF)로 분할해 2010년까지 산은지주회사 지분 49%를 매각하고 2012년까지 지배지분을 팔겠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은행들 가운데 우리금융 지분 23%를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매각하기 시작해 현 정부의 임기 안에 민영화를 끝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종전보다 다소 구체화된 민영화 일정을 제시한 전 위원장의 발언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공기업 민영화를 후순위 정책과제로 돌린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 보유 은행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고 대외 신뢰도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영화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 JOBKOREA.CO.KR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H&T	[광주역/우산동]SK텔레콤 114인바운드 상담원	고졸/경력무관	2400~2600	06/20	062-350-6333
드림보습학원	중등 수학교사 (파트타임가능)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0	062-382-2366
DLS 세일즈프라자	총무 및 경리, 회계 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6/20	010-4422-0500
㈜태흥아이에스	[정규직]기술영업 신입/경력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1	062-522-9181
엔소엔	쇼핑몰 재고/포장/매장관리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6/21	062-375-0842
㈜나경인터내셔날	총지배인(영어가능자우대)	초대졸/경력5년	회사내규	06/21	062-231-1571
ING생명[본사]	[주가연계/연금]본사상담원(재테크상담)-월평균300만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5	02-3452-2612
㈜아이티블루	KTF개통실 사원 및 경리회계직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5	062-234-1439
서암기계공업㈜	생산지원(구매,외주,생관), 기술연구소, 품질검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5	062-960-5000
㈜참빛건설	본사공무(현장총괄관리 및 공무)	초대졸/경력3년	2600~2800	06/25	062-651-5951
㈜아이에스인프라	경리업무 여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5	062-961-9321
아이러브인테리어㈜	영업,영업관리 및 영업기획 사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6/28	061-794-2013
령춘산업개발㈜	토목/건축 기술직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06/28	062-372-6399
에네스건설㈜	조경기술자(관리직)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6/30	062-572-5500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